
美 “차이나 달러” 경계론 급부상 동향 및 전망

2005.7

海外調査팀

KOTRA

목 차

I. 최근 중국의 미국 공세 동향 /1

1. 美-中 교역 동향 /1
2. 중국의 美기업 인수 동향 /3
3. 기타 중국 관련 주요 동향 /8

II. 중국의 공세에 대한 미국의 입장 /11

1. 정부의 입장 /11
2. 의회의 입장 /12
3. 업계, 노동계의 입장 /13
4. 언론의 입장 /15
5. 학계의 입장 /16
6. 투자분석가의 시각 /16
7. 일반국민의 시각 /17

III. 향후 전망 및 시사점 /18

1. 향후 미국의 대응전망 /18
2.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9

I. 최근 중국의 미국 공세 동향

1. 美 - 中 교역 동향

□ 중국의 대 미국 무역수지 흑자 확대

- 최근 중국의 무역수지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양대 무역상대국인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 대한 흑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1992년 약 250억달러 규모에 달하던 미국의 대중 수입액은 거의 매년 2 자리수의 고성장세를 보이며 2004년 1,997억 달러를 기록
 - 특히, 2002년 이후 대중 수입액 증가율은 매년 20%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금년 5월까지의 증가율도 27.8%에 달하는 등 수입 급증세 지속
-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2000년 이후 2자리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금액은 수입액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금액도 매년 20% 이상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5월까지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약 33% 이상 증가한 724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적자액이 지속적인 신기록을 수립하고 있음

<미국의 대중 교역실적>

[단위 : US\$백만,%]

구 분	2002년(증가율)	2003년 (증가율)	2004년 (증가율)	2005. 1~5월 (증가율)
수 입	125,192 (22.40)	152,436 (21.76)	196,699 (29.04)	88,197 (27.88)
수 출	22,128 (15.36)	28,368 (28.20)	34,721 (22.40)	15,698 (7.58)
무역수지	-103,065 (24.03)	-124,068 (20.38)	-161,978 (30.56)	-72,499 (33.33)

(정보원 : World Trade of Atlas)

- 중국은 무역흑자를 통해 축적되는 달러화를 미 국.공채 시장에 대규모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많은 달러화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중요 팩터로 부상 (최근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7000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의 대 중국 견제 심리 확산

- 한편 대중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 및 EU는 '위안화의 대 달러화 고정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중국은 이러한 주요 무역상대국의 압력을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며 정면 대응, 현재까지 위안화 고정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미국내에서는 중국정부 및 중국상품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미 의회는 중국상품에 27.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상정하는 등 대중 압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

- 이러한 미-중 양국의 무역불균형 속에서 최근 중국기업의 미 기업 인수관련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중국의 대공세가 시작되었으며 중국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각

2. 중국의 美기업 인수 동향

□ 중국의 美기업 인수 움직임에 미국 긴장

- 미국과 중국간 경제교류 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양국간 정치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음
- 이러한 긴장고조는 베이징 소재 중국 Lenovo 그룹이 미국 IBM사로부터 개인용 컴퓨터 부문의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촉발되었음
 - 동 거래는 중국본토 기업이 미국 소재기업을 수십억 달러에 인수하는 최초의 사례로 양국간 교역과 투자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으나 부시 행정부는 중국기업의 IBM PC 부문 인수 및 최근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미국자산인수를 결코 간단한 사안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의 美기업 인수합병 노력 활발

-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간 인수합병(M&A)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지난 수년 동안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의 채권과 주식을 사 모으는데 투입해 왔음

- 2005년 현재 중국 정부는 7,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70% 이상이 미국 정부와 연관된 채권과 주식 매입에 투자되어 있음
- 이에 반해 현재까지 중국의 미국기업 자산취득 규모는 이상의 간접투자에 비해 훨씬 작아 2003년말 기준 3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나 최근 그 증가세가 가속화되는 추세임
- 이러한 사례로 작년 8월 중국의 Sinopec International Petroleum 은 카자흐스탄에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석유기업인 First International Oil Co.를 1억 5천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중국 국영 Offshore Oil Corp.는 캘리포니아 소재 에너지 회사인 Unocal 인수를 위해 185억 달러 규모의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임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추진 현황>

중국기업	인수대상 미국기업	비 고
레노보 (Lenovo)	IBM의 PC부문	PC부문 (인수완료)
중국해양석유 (Cnooc)	Unocal	에너지분야 (진행중)
하이얼 (Haier)	메이텍	백색가전분야 (진행중)
에이서 (Acer)	HP PC부문	PC부문 (진행중)

- 특히 최근 Cnooc의 유노칼 인수 움직임은 중국이 원자재 블랙홀에서 에너지 블랙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또한 최근 중국기업의 미 기업 인수 움직임으로 인해 1980년대

말 일본이 미국기업을 공격적으로 인수할 때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분석하는 움직임 활발

<1989년 일본과 2005년 중국의 일부 경제지표 비교>

비교	미 국채 보유액 (비중*)	해외직접투자금액	1인당 GDP (2005년 \$ 기준)
1989년 일본	\$1,800억 (21.3%)	\$29억	\$24,104
2005년 중국	\$2,300억 (18.6%)	\$889억	\$1,410

주) * : 외국 투자가가 보유한 총 금액(미 국채 보유액) 중 비중
(정보원 : Bianco Research)

□ 최근 중국의 미 기업 인수추진 사례

(1) 레노보(Levano)사의 IBM PC부문 인수

- 2004년 중국 최대 컴퓨터 제조업체인 레노보는 17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해 IBM의 PC 사업부문을 인수
- Lenovo사는 IBM PC사업을 담당했던 Stephen Ward Jr.를 PC 생산 책임자로 임명했고, Cnooc사도 Unocal의 관리자들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천명

(2) Cnooc의 Unocal사 인수 추진

- 중국의 국영 석유회사인 Cnooc사는 Unocal사를 매입하는데 185억 달러를 제시해 미국에 또 다른 중국發 충격을 주고 있음

- 미 의회의 반대자들은 중국이 미국의 오일/가스 유전의 운영권을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건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음

(3) 하이얼(Haier)의 메이텍 인수 추진

- 중국 Haier사는 유명 미국브랜드인 Hoover를 소유하고 있는 Maytag사를 인수하기 위해 12억 8,000만 달러(주당 16달러)를 제시함
- Maytag사는 얼마전 뉴욕에 소재한 Ripplewood Holdings사에 11억 3,000만 달러(주당 14달러)에 매각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시 입찰전쟁을 치를 것으로 전망됨
- 만약 Haier사가 Maytag를 인수하면 이는 2004년말 IBM PC 부문을 중국 Lenovo사가 인수한 이후 2번째 미국 브랜드 인수로 기록될 것임
- Maytag사는 미국내에 12개, 멕시코에 2개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1/4분기 중 이익이 80% 감소하고 주식가치가 25% 떨어진 상황임
- 한편, Haier사는 중국 국영기업으로 중국내 냉장고 및 에어컨 시장을 각각 26%, 16% 점유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임.(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Camden지역에 4,000

만 달러를 들여 공장 건설)

(4) 기타 사례

- 수천만 달러대 규모로 중국기업이 인수하고자 하는 중소형 인수 프로젝트는 현재 수십 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
- 도르래 제조업체인 Adams Press Metal사는 그간 납품해 온 John Deer사가 2003년 들어 자사 가격의 절반에 중국 Tri Star 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하자 결국 Tri Star사에 기업을 매각(100만불)함
-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에는 브랜드가 중시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본주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글로벌브랜딩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어 중국기업의 일류브랜드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임
- 이것이 중국의 가전 대기업인 Haier사가 미국 Maytag사와 GE의 백색가전부문 인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유임
- 미국의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은 중국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이 가능하면 Delfi 전체를 사들이든지 또는 동사의 특정부문을 인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

3. 기타 중국 관련 주요 동향

□ 무역흑자 지속 확대

- 중국의 수출은 2003년 이후 30% 이상의 고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2005년 들어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져 2005년 무역흑자가 급증하는 추세
- 2005년 상반기 중에만 중국은 총 389억 달러를 초과하는 무역흑자를 기록, 2004년 전체 무역흑자액을 초과했으며, 2004년 동기간 중 무역수지가 약 68억 달러의 적자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놀라운 반전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중국의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

년도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무역흑자
2002	325,642 (22.1)	295,303 (21.2)	30,339
2003	438,473 (34.6)	413,096 (39.9)	25,377
2004	593,647 (35.4)	560,811 (35.8)	32,846
2005 (1~6월)	342,435 (32.6)	302,592 (14.2)	39,843

(정보원 : KOTIS 중국통계, 중국세관 발표자료)

□ 중국기업의 나스닥 진출 활발

- 2004년말 기준 NASDAQ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국기업 수는 18개로 아시아 태평양 연안국가 기업 중 나스닥에 상장된 총 기업수 77개의 약 1/4에 육박함(한국의 상장기업 수 : 4개)

-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어 나스닥 관계자에 따르면 2004년에만 10개의 중국기업이 상장했으며 2005년에는 총 20개의 중국기업이 추가 상장될 것으로 전망됨
- 지금까지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인터넷 관련업계가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산다(Shanda) 등 온라인 게임업체가 두각을 나타내 작년 5월 상장 이후 최근 주식시가총액이 22억 달러에 달해 상장 당시에 비해 3배 증가함
-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기업들의 경우,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직접적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스닥 상장을 통한 기업의 대외신인도 제고 및 기업 이미지 마케팅에도 큰 이점을 누릴 것으로 평가

□ 중국의 에너지 안보 노력

- 중국과 인도가 세계 에너지 시장판도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Cnooc의 미 Unocal사 인수 시도는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음
- 이러한 Cnooc의 움직임에 워싱턴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만약 Cnooc의 Unocal 인수가 성공할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석유자산 확보전에서 최초로 미국기업을 이기는 사례가 됨
- Cnooc과 쉘브론의 인수경쟁으로 Unocal의 주가는 상승했지만 미 정계에서는 중국기업의 미국 에너지 회사 인수가 미칠 영향

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

- 즉, 만약 Cnooc이 쉘브론을 이긴다면 미국에 의한 국제 석유시장 지배질서가 무너지는 의미있는 사건으로 평가되겠지만 미 정부가 Cnooc 인수를 승인할지 불투명한 상황
- 중국의 에너지 안보 노력은 국제 정유회사 인수에 그치지 않고 해상 인프라 개발쪽으로도 미치고 있으며 파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등지에 새로운 항구와 석유타미날을 계획하고 있음

□ 중국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 최근 미국내에서 중국을 과학기술 후진국에서 경쟁국으로 새롭게 인식, 이에 대한 대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Michael Pillsbury 박사는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에 제출한 '중국의 기술 쟁력 향상' 보고서에서 중국의 과학기술이 최근 '스푸트니크 충격'에 비유될 만큼 급격히 발전했다고 평가
- 보고서에 제시된 통계에 의하면 중국은 2004년 일본을 추월, 세계 제 3위의 수출국이 되었으며 특히 전자제품이 전체 수출의 1/3을 차지하는 등 신흥 기술대국으로 부상
- 따라서 중국은 이제 기술 후진국,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저가 범용상품을 수출하는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세계 최대 경제력을 갖춘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위기 확산

II. 중국의 공세에 대한 미국의 입장

1. 정부의 입장

- 중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상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시각
 - 최근 중국이 공격적으로 전략 물자나 자원 확보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긴장하는 분위기
 - 미 재무부는 Unocal이 Cnooc의 인수제의를 받아들일 경우 방위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에 따라 동 건을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검토하고 인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천명
 - 최근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려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미국 경제력 손실과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으로 미국의 최신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게 부각
 - * 현재까지 미국정부가 나서 외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를 불가능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예는 흔치 않으나 1990년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시애틀 소재 항공기 부품제조업체의 대 중국 매각을 당시 부시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재한 적이 있으며 2003년 홍콩의 대기업이 미국 Global Crossing Ltd.를 인수하려 했을 때 세계 해저통신 네트워크 시장을 중국계 기업이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우려를 표명, 중국기업이 입찰참여를 포기한 사례가 있음

2. 의회의 입장

☐ 대 중국 반감 확산

-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가 185억 달러로 Unocal사를 인수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당혹해 하는 분위기 (미 공화당 Lindsey O. Graham 상원의원은 중국 국영기업의 미 경쟁사 인수시도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평가)

☐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주도

- 중국기업 및 상품에 대한 각종 규제법안 상정
- 위안화 평가절상,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 미 행정부 압박

☐ 중국의 기술발전에 대한 경계심 고조

- 미 하원은 행정부로 하여금 중국 Cnooc사의 미국 정유회사(Unocal) 인수를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금지하도록 의결
- 미 정부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빼내어 자국의 기술발전을 유도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
- 미 연방 수사국(FBI)의 David Szady 국장은 일반적으로 10년 정도에 걸쳐 개발될 기술이 북경에서는 2~3년 내에 개발되고 있다고 주장함

- 특히 최근 중국 해군의 원양작전 능력이 급속히 발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국이 이제 상품 및 기기 일부분뿐만 아니라 작전 및 통제 시스템에 대한 기술도 빼내간다고 주장
- 중국은 2002년 펜티엄급 CPU를 자체 제작했으며 2003년 유인 우주선 실험에 성공, 2004년 차세대 인터넷용 IPV6 라우터를 세계최초로 개발하고 금년초에는 1초에 10조의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완성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중국의 미국기업 인수는 미국인들에게 중국으로의 기술유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3. 업계, 노동계의 입장

- 미 제조업자연합 (Manufacturers Alliance)은 제조업과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 세계 경제 및 정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중국의 위협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다음의 대응방안 제시

☐ 위협 요인

(1) 급격한 기술 발전

- 중국은 R&D 투자 확대와 풍부한 이공계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급격한 기술발전을 이룩함.
- 중국 정부의 R&D 투자는 2004년 현재 미국의 40%에 불과하지만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의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이

6%에 반해 중국은 22%에 달함.

- 이에 따라 중국의 기술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FDI를 통한 세계 자본과 기술유입은 세계의 생산 기지로 우뚝 서는데 일조

(2) 세계 최대 달러 보유국

-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작년 한 해에만 2,000억 달러 이상 증가해 총 7,000억 달러를 돌파, 중국의 경제적 지위 강화

(3) 아시아경제 블록화 논의 급물살

- 중국은 군 현대화 및 강화된 군사력, 수출을 통해 아시아에서 미국을 제치고 정치 및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
- 2004년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의 교역액은 1,058억 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특히 당초 예정대로 2010년까지 아세안과의 FTA를 타결할 경우 북미지역과 유럽연합에 대항할만한 경제블록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

□ 대응방안

(1) R&D 투자 확대

- 과학기술의 리더십 유지를 위한 R&D 투자확대 등 정부와 학계의 공동 노력 요구

(2) FTA 체결 확대

- 아시아 지역내 미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FTA 체결 확대 주문
=>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FTA 뿐만 아니라 한국 및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태국과의 FTA 체결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노동계의 시각은 미국이 중국에 많은 일자리를 뺏기고 곧 중국인 상사와 일해야 한다는 위기의식 표출

4. 언론의 입장

- 1980~90년대 일본투자자들의 공세와 비교하며 중국의 위협이 더 커다는 시각
- 중국의 미국기업 인수시도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으며 학계, 업계 및 경제계 인사들의 분석을 인용, 중국의 최근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는 경고성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
- 그러나 일부 언론은 현재 많은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브랜드 관리와 유통에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큰 시장에 서둘러 뛰어 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위험한 행위로 평가함
- 즉, 일부 기업들은 인수 후 세계 수준으로 진입하겠지만 약 70%의 인수가 실패로 귀착되었다고 분석

5. 학계의 입장

- 최근 중국의 미국기업 인수시도가 1980년대 말 일본의 경우보다 더욱 위협적인 것이라고 평가
- 경제학자인 폴 크루즈만은 그 이유로 중국이 15년 전 당시 일본과는 달리 돈을 낭비하지 않는 합리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주장

6. 투자분석가의 시각

- 중국의 미 기업인수를 위한 입찰참여에 미국이 분노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임
- 중국은 석유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석유회사를 인수하려는 것이라고 이해
- 미국 달러가 풍부한 중국은 연 4% 수익을 내는 미 연방채권 대신 다른 곳에 투자하려 하는 것이며 중국이 미국의 석유회사를 사들인다고 분노하고 있지만 사실 Unocal사의 가장 가치있는 유전은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힘
- 또한 중국이 Unocal사로부터 기술을 빼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중국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지하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을 환기시키며 인수거래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평가

- 오히려 중국의 입찰참가로 양호한 기업매각 환경이 조성되어 다국적 기업들의 문제있는 부문을 중국에 팔 수 있다는 시각 (손실을 기록 중인 IBM PC 부문을 중국 Lenovo에 매각한 사례 등)
- 또한, 대중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서도 이러한 거래가 많아져 중국에 있는 달러를 리사이클링해서 세계경제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7. 일반 국민의 시각

□ 미국국민은 대부분 Cnooc의 인수거래에 적대적인 것으로 나타남

- 월스트리트저널과 NBC뉴스가 공동으로 주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국민의 73%는 Cnooc의 인수거래에 적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수전이 지속됨에 따라 미 의원들이 이 거래를 저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유발시키고 있는 상황

Ⅲ. 향후 전망 및 시사점

1. 향후 미국의 대응 전망

- 기업합병과 인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도기술 이전이 당초 상업용에서 안보용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우려하고 있음
 -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인수행위가 중국으로 하여금 군사목적에 응용될 수 있는 미국 내 기술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미국 관리들 역시 중국에게 산업스파이 활동을 가능하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긴장하고 있음
- 반면, 중국의 해외기업 인수 움직임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큰 경제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중국기업 대부분은 치열한 국내경쟁을 피하기 위해 해외기업을 인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큰 위협이 아니라는 분석임
 - 이와 관련, 앨런 그린스펀 FRB 의장은 중국에 대한 미 의회의 보호주의 움직임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특히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종가인 미국이 중국의 기업인수 움직임을 문제 삼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중국기업의 미 기업인수 문제에 관한 각계의 여론

및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임

- 지금까지 사태의 추이를 관망해 온 부시 행정부도 의회 및 산업계가 주도하는 중국에 대한 반감을 어떤식으로든 무마시키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더구나 최근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70%이상의 응답자가 중국 Cnooc의 미 석유기업 Unocal 인수에 적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 인수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미 의회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며 부시 행정부의 최종결정에 큰 압박요인을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최근 중국의 미기업 인수추진건 중 가장 규모가 큰 Unocal사 인수 문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정치적 측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됨

2.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우리기업의 대미진출 형식 다변화 검토

- 최근 중국의 미 기업 인수는 1980년 후반 일본의 미국자산취득에 비교되고 있지만 기업인수 동기 및 진출방식에는 차이가 있음
- 즉, 1980년대 후반 일본의 경우 미국 영화사 매입, 부동산 취득 및 일본기업의 미국 법인설립 및 확장 등의 형식으로 대미공세를 취했으나 최근 중국의 경우 보다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중국은 무역장벽이 높은 업종에 투자할 경우 인수.합병을 통해 즉시 진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
- 1990년대 중반까지 중국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자원개발형, 무역장벽회피형, 시장개척형 투자가 많았으나 1990년말 이후 대형 우량 가전업체와 IT 업체들이 외국의 첨단기술, 숙련된 인력, 해외유통망, 브랜드 등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위해 M&A 방식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비중이 증가함
- 이와 관련, 우리기업들의 기존 대미투자형식도 더욱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과잉반응

- 최근 중국의 급부상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주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주도해 온 미국의 시각에서 중국은 향후 경제성장의 동반자이자 미국의 경제적 주도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
-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인식 변화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대중 무역적자 문제가 부각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 중국의 미국 기업인수 시도는 미국 각계의 반감을 고조시키고 있음
- 그러나 실상 중국의 외국기업 인수시도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시아, 유럽 등 전세계를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현재

7,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엄청난 보유외환의 새로운 투자처 발굴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최근 미국이 다소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엄청난 외환보유고 (특히 달러화 외환)를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에 대한 미국의 반감 고조 및 이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관심

- 중국은 최근 엄청난 보유외환을 활용, 전세계의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M&A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우리기업도 주요 M&A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즉, 중국의 해외투자는 직접 해외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형식의 그린필드 투자보다 M&A와 전략적 제휴를 선호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역사가 일천한 중국기업이 갖지 못한 첨단기술 습득과 브랜드 인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수기술 및 유명브랜드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기업 경영권 보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전망됨

□ 대중 기술유출에 주의

- 우리상품이 저렴한 생산코스트 등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중국상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디자인 개발 등 제품의 품질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

- 이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의 우수기술이 기업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 대중투자 등을 통해 손쉽게 중국으로 유출된다면 우리상품은 설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임
- 따라서, 대중 투자진출, M&A 협상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수행 시 우수기술 유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투자유치 및 선진기술도입에 주력

- 한.미 통상마찰 발생 가능성에 대비, 미국기업의 대한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긴밀한 한.미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첨단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의 기술습득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됨

□ 강자의 논리가 주도

- 미국은 최근 중국의 대미투자 확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기업의 대중진출도 확대되고 있음
- 2004년 미국의 대중 수입금액의 약 27%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자회사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최근 위엔화 평가절상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크게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이런 요인을 감안한 것임
- 또한 중국정부가 70%의 지분을 보유한 Cnooc의 Unocal 인수시도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입찰경쟁에 나서는

것은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미 미국의 경우 WTO로부터 위반판정을 받은 ‘버드 수정법’을 현재까지 폐지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Airbus와 함께 세계 항공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Boeing사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보조금 지급은 거듭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등 강대국의 논리가 정치 분야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 분야도 주도하고 있음
- 이런 상황을 인식, 우리나라에 대한 예상되는 미국의 전방위 압력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작 성 자

- ◆ 임채근 차장(뉴욕무역관)
- ◆ 김한나 책임연구원(해외조사팀)

美 “차이나 달러” 경계론 급부상 동향 및 전망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인쇄처 : 학림사 02)752-0463

발행일 : 2005년 7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